

자연과 풍경의 위로... 6월엔 행복한 그림 한 점

갤러리 이디 '꽃 나들이 봄' 국내 중견 작가 6인 초대전 개막 한 달째 방문객 꾸준 "또 다른 색채와 기법 작품 밝고 긍정적인 기운 만나길"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님. 참 좋다" "이 또한 감사." "봄 향기 속 갤러리 나들이 곳." 관람객들이 남겨 놓은 짙은 소감글 중 일부다. 어느덧 무르익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든 계절에 한라일보 1층에 들어선 갤러리 이디(ED)의 기획전이 지역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꽃 나들이 봄'이란 이름을 달았다. 봄처럼 생명력이 움트는 순간을 담아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견 작가 6명이 초대됐다. 저마다 30회 안팎의 개인전 이력을 지녔고 국내의 아트페어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인환, 박일용, 이강화, 이수동, 이영수, 최지운 작가(가나다순)다.

갤러리 이디에 놓인 작품은 모두 합쳐 30점이 넘는다. 코로나19 시국을 건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늘 그 자리에 있는 자연의 힘을, 그리움과 설렘이 느껴지는 동화 같은 나날을 통해 "수고했어요"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작품과 마주하게 된다.

문인환은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인 수평선에 펼쳐진 갯벌을 형상화한 '바다에서 길을 보다', '바다와 대지' 등을 출품했다. 침묵하는 그 땅의 기운이 속세에서 찌든 감정을 씻어줄 듯 하다.



이수동의 '편지'.

박일용은 '프롬 네이저' 연작으로 수련에서 얻은 이미지를 초록의 화면 안에 풀어냈다. 붓과 색을 이용한 작업에 더해 그것들이 차츰 절판에 채색으로 수련 잎을 쌓아올리는 부조 작품까지 확장된 결과물을 보여준다.

이강화는 '축제-영경귀', '인연', '잉태' 등 고색창연한 문법에 들꽃을 올려놓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들판에서 무심히 짓밟히는 작고 어린 존재들이지만 작가는 그것들에 눈길을 주고 세찬 물줄기에도 스러지지 않는 질긴 생명력을 표현했다.

드라마 '가을동화' 속 그림으로 유명한 이수동은 근래 한국 미술시장에서 핫한 작가 중 한 명이다. 이번 제주 초대전에는 '꽃바람', '편지', '겨울다방', '유월', '주렁주렁 이사화' 등 행복을 부르는 그림들을 펼쳐놓고 있다. 이 작가는 "나의 그림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내 그림을 자랑스러워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도 부지런히 작업을 이어간다고 했다.

이영수는 유화 '윈디 데이', '내추

럴 이미지' 연작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연을 보냈다. 이파리와 나뭇가지 끝 대롱대롱 매달린 자그만 이슬방울에 연꽃빛 세상이 들어 있다. 작가는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붓질 속에서 때론 멈춰 서야 할 때를 생각한다고 했다.

최지운은 자연을, 사랑을, 세상을, 마음을 그리는 작가다. 그의 '사랑하놋다' 연작엔 보석 등을 활용해 인간의 욕망, 그곳에서 피어나는 향기로 온 꽃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한미라 갤러리 이디 관장은 "제주에서 익숙하게 보던 색채나 기법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작품을 준비했다"면서 "사무실이나 집에 그림을 걸어두고 싶다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전시는 이달 18일까지,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갤러리 연락처 750-2543. 전신허기자



이강화의 '잉태'.



최지운의 '사랑하놋다 20-1'.



이영수의 '내추럴 이미지'.



박일용의 '프롬 네이저 13'.



문인환의 '아침 바다'.

싱그런 계절 제주 청년 음악인과 함께

문화진흥원 기획 공연 두 편 신예 연주자 협연 '6월의 꿈' 이미지 음악극 '파도의 생'

시각예술 분야의 제주 청년 작가를 꾸준히 발굴해 온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이번에는 공연예술계의 청년 음악인들과 함께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에 주목한 '6월의 꿈'과 '파도의 생(生)' 등 기획 공연 두 편을 준비했다.

이달 9일 오후 7시30분부터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6월의 꿈'은 '2021 청춘음악가들의 향연'이란 부제를 달았다. 신예 연주자들이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허대식)와 호흡을 맞춰 기악, 성악곡을 들려준다.

출연진은 윤소희(비올라) 임준혁(카운트테너) 백진호(피아노) 한지희(피아노) 안미현(피아노)이다. 이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 '3악장(한지희), 글록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 나오는 '안녕, 나의 한숨이여'(임준혁),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4번' '3악장(안미현), 브루흐의 '로망스 작품 85'(윤소희),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 16' 중 '1악장(백진호)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14년 창단된 제주페스티벌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출발했다. 2016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경기연주회, 협주곡의 밤 등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팝스오케스트라의 '파도의 생'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민간우수예술단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경쟁력 있는 작품이다. 제주팝스오케스트라는 '이미지 음악극' 형태로 눈과 귀로 즐기는 무대를 꾸민다.

'파도의 생'에는 제주의 아픈 근·현대를 몸으로 살아낸 어느 해녀의 삶이 담겼다. 제주 해녀를 통해 제주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새길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이달 12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2000년 창단 연주를 가진 제주팝스오케스트라는 바로크에서 대중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다. 다채로운 연주 편성과 기획 공연으로 문턱 낮은 음악회를 개최해 왔다.

부재호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공연이 청년 음악가들과 도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고, 지역 문화예술계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두 공연의 관람료는 무료.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각 190석만 개방한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온라인 예매시스템(www.eticketjeju.co.kr)을 이용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전신허기자 sunny@ihalla.com

코로나 시국에도 전각예술로 가깝게

제주전각학연구회 교류전 광주 담헌서실 이목회 참여

한 치 사랑 넓이의 방촌(方寸) 안에 인장을 새기는 행위를 일컫는 전각(篆刻). 제주에서 20년 넘게 전각예술의 가치를 나누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전각학연구회가 10년 전부터 인연을 맺은 광주의 담헌서실 이목회와 지난 5일부터 제주도문화회관 3전시실에서 교류전을 열고 있다.

이번 교류전은 '전각과 현대서예의 만남'이란 이름을 달았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두 지역 서예가들은 종이에 먹글씨, 전각이 어우러져 회화적 요소를 드러내는 작품들로 제주에서 가깝게 만나고 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중견 서예가들

로 구성된 제주전각학연구회는 김지웅 회장 등 11명이 출품했다. 이들은 '영주십경' 등 제주를 노래한 옛 시에서 따온 글귀나 제주목사가 남긴 시문 등을 써 내려갔다. 이효석의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구절을 새기는 등 한글 전각 작품도 나왔다.

담헌서실 이목회에서는 전명옥, 박익정 등 16명의 중견 서예가들이 작품을 냈다. 한문, 한글 등 서예가들의 개성 있는 글씨에 허한 마음을 채우는 글귀들이 포개졌다. 이목회 회원들은 제주를 추사체의 완성지이자 추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여기며 제주 교류전에 의미를 뒀다.

두 단체의 '전각과 현대서예의 만남' 교류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시는 이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전신허기자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지금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주택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